

공공 · 문화 · 교육시설부문
- 백가쟁명(百家爭鳴)의 해

Recent Trend of Public, Culture and
Education Facilities

고성룡 / 경성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Go Sung-Yong

현대를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시대라 하였는가? 지난 한해동안 건축전문지를 장식한 국내 건축들을 살펴보면 이에 걸맞게 다양성을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다. 외국 건축을 직수입하여 외국건축의 포장지에 싸여 있던 자생적이건 간에 수많은 건축개념과 건축어휘들이 국내 건축계에 제시되고 시도되는 한해였다. 이는 열심히 건축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도 되겠고 우리 건축의 작업 역량이 나 저변이 그만큼 넓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다. 생태학적으로 볼 때 어느 군락에서 개체의 다양성은 바로 건강한 사회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 국내 건축설계분야는 최근의 우려되는 건축 경기와는 무관하게 오히려 내부적으로 발전한 한 해였을까 음미해볼 일이다.

우선 지난해의 국내 건축설계의 움직임을 보자. 대형프로젝트는 그 속성상 대개 기업화한 대형설계사무소가 담당하였다. 여러 이유에서 외국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합작하거나 건축주의 바람에 편승하여 외국에 외주를 주는 설계 작업이 주를 이루었다. 그 결과로 외국 설계사무소의 세련된 표현과 함께 외국디자인 경향을 그대로 수용, 표현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과연 이러한 수입과 합작을 통해 우리의 대형사무소들이 한 수 배운 것인지는 되물어보아야 한다. 아니면 대형사무소에서 실제 일을 담당하는 소위 실장급들의 낯두리처럼 그저 남 좋은 일만을 한 것인지 되짚어 볼 일이다. 더욱이 한 수 배우기 위해 건축하는 이의 가슴이나 혼을 저당 잡히지는 않았는지 모를 일이다. 철저한 되새김을 해야 한다. 반면에 규모 작은 프로젝트를 주로 담당하게 되는 소규모 사무소 또는 아틀리에 건축가들은 어떠한가? 건축과 이를 둘러싼 컨텍스트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화답을 통해 그토록 갈망하던 한국 현대건축의 정체성이나 건축의 본질에 접근하였는가 살펴보아야 한다. 잡지와 각종 발표회를 통해 치열하게 화두에 답하였는가를 역시 되돌아보아야 한다.

한 해의 건축을 되돌아보는 일이란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다. 우선 국내 건축을 만들어냈던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 요컨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이슈들을 우선 살펴야 하겠

고, 건축이 자리매김하는 한국이라는 또는 도시라는 장소성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야 국내건축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예술이나 건축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심도 있는 되돌아봄은 차후에 전문가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지난 한해 국내에서 출판되는 건축전문 월간지에 게재되고 논의된 국내 건축들과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1997년 한 해의 건축을 어렵해 보기로 한다. 워낙 건축월간지들이 보다 제시적이고 전위적인 건축에 손을 들어주긴 하지만 문제를 인식하여 건축을 걸러내는 소임도 다하고 있으므로 지난 한해 주요 건축 월간지에 오르내린 국내 건축들 중에서 필자에게 요구된 공공, 문화,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동향을 살펴보고 필자 나름대로 한해를 대표할 건물들을 열거해 보기로 한다.

지난해 국내건축의 설계 동향을 개관하면 크게 다섯 가지를 우선 떠올릴 수 있다.

첫째는 건축외관의 중시 경향이다. 특히 프로젝트가 대규모가 될수록 외관과 외피 처리에만 치중하여 내부 공간의 감흥은 뒷전이다. 최신 해체주의나 네오모던의 영향 탓도 있었으나 별다른 고민없이 자유곡선과 사선이 건물 곳곳에 무신경하게 채택되고 이것이 마치 새로운 경향으로 오도되어 국내건축에 풍미하고 있다.

둘째, 형태언어상 타원형이나 타원기둥이 두드러지며 이에 많은 형태적 해결을 맡기고 있다. 그 기능이 회의장 이건 식당이건 민원실이건 상관없이, 또는 유리상자건 콘크리트 상자건 개의치 않고, 남들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습관적으로 특수 해를 애용하는 듯하다.

셋째, 건물 최상부의 다양한 형태 출현이다. 이는 몇 해전부터 두드러진 경향이긴 하지만 건축물의 최상부가 평편한 슬라브로 남겨지는 것을 피하려는 경향이다. 따라서 물결모양의 지붕이나 둥근 배럴볼트 또는 한쪽으로 경사진 형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하늘에 자주 등장한 한해였다.

넷째, 외장재료의 개성적 사용이다. 이 중에서 특히 아틀리에 건축가들이 그들의 건축적 의지를 관철하려는 듯 노출콘크리트의 표현이 주류를 이룬 한 해였다. 또한 새로이 등장하여 눈에 띄어 각광을 받은 외장재는 인도산 사암이다. 다양한 색깔과(그 중에서도 붉은 사암) 재질감 때문에 많은 건축가들의 사랑을 받았다. 또한 아이소코트나 드라이비트도 시공성과 표현 용이성 때문에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여러 외장재를 대비적으로 사용하는 등 재료의 다양한 선택과 적용이 두드러진 한해였다.

다섯째, 과감한 원색들의 등장이다. 기존 관념을 깨고 외장재의 물성에 힘입어 과감하게 원색들이 건축 여러 유형에 시도된 한 해여서 무채색 위주의 건축풍경이 다채색적이고 매우 개성 있는 연출로 표현되는해이기도 하였다. 그밖에 국내건축 동향으로는 신진건축가들이 대거 진출하여 열심히 자

신의 생각과 주장을 펼쳤으며 간간히 비전공 건축인(?)이 건축계에 새로운 활력을 던져주기도 하여 국내건축설계분야의 저변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공공시설의 경우는 계속되는 건축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체 또는 공공단체들의 프로젝트들이 계속 발주되어 그 어느 해 보다도 그 규모나 성격에 관계없이 현상설계가 풍년을 이루었던 한 해였다. 그러나 무분별한 현상설계의 남발과 발주주체의 무책임한 설계지침의 작성 그리고 고질적인 짧은 제작기간으로는 우수한 작품을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었다. 여러 건축적 상황 속에서도 1997년에 기억할만한 건축작품과 건축가를 나름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물론 필자의 자의적인 선택이 대부분이겠지만 주요 작품을 살펴봄으로서 1997년 한 해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

공공문화시설 / 전시시설

중견 아틀리에 건축가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각기 나름대로의 건축개념을 추구하며 건축의 본질을 애써 추구한 흔적들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건축 내부의 질서나 성격을 규정하는 공간의 추구, 재료의 물성 파악과 적극적 표현 또는 주변 컨텍스트와의 관계 규정 등 다양한 시도가 보인다.

그 중 주요한 작품은 다음과 같다.

- 동송동 문화공간 (승효상, 이로재 건축연구소)

주변의 잡다한 표정에 대해 다소 냉소적인 콘크리트 패널들로 대비시키고 있다. 그러나 건물 여러 레벨로 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오픈된 계단의 역할과 이에 따른 공간의 전이와 훌륭하다.

- 금호미술관 (김태수, TSK건축)

14m 고도제한규정의 한계를 극복하며 경복궁이 주는 장소성과 한껏 조화를 꾀하고 있다. 경복궁 돌담이 주는 인상을 간직하듯 화강석 외장 벽과 짙은 색 동판 창의 질서가 돋보인다. 단순한 구조와 전시실 천장의 극대화는 현대건축의 이미지를 더욱 강조한다.

- 독도박물관(유건+김혜정, 사상건축)

역사적 의미 때문에 자칫 오도될 건축언어를 정제된 조형언어와 공간구성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여러 의미를 부여하며 질서 지워진 조형성 못지 않게 공간의 시퀀스가 훌륭하다.

- 박영덕 화랑(조성렬, 큐빅디자인연구소)

주택을 가벽을 이용해 리노베이션한 작품이다. 내부공간의 백색에서 흑색에 이르는 무채색과 대비되는, 회색의 외벽과 붉은색 캐노피의 색채계획이 돋보인다. 외장재로 쓰인 굴곡면의 철판, 건물 정상부의 타공판 사용이 눈길을 끈다.

- 샘터화랑(최두남, 최두남건축)

대지나 건물의 기능이 가지는 이중성을 그대로

건물의 매스와 표피로 표현하고 있다.

- 숨리문화예술센터 (이배화, 한라공대 건축과)

예각으로 튀어나온 유리의 반원모양과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극장 전면 파사드가 백제의 옛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신흥공업도시 익산시의 현 좌표를 대변한다.

교육 연구시설

특히 교육시설의 기존 관념을 깨드리는 새로운 유형의 제시가 많았다. 학교 표준설계도에 따라 무감각하게 지어지는 기존 학교에 중점을 지닌 중교교가 제안되었으며, 건축가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유치원 계획도 제안되었다. 장애자시설에도 새로운 이미지와 색채계획이 시도되어 교육시설의 다양한 접근과 시도가 있었다. 또한 학교시설의 리노베이션으로 김준성의 작업은 건축재료의 물성을 이해하는 좋은 시도였다. 주요 작품은 다음과 같다.

- LG화학 대덕연구소 (김태수, TSK건축)

건축문화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 단순하고 명료한 건축언어와 질서 위에 자연과 건물, 인간의 관계를 단순한 조형미로 설정하고 있다. 자연이라는 주변환경과 어우러진 정갈한 외부공간을 만들고 있어 연구소 건축의 새 장을 열고 있다.

- 동아방송전문대학 (윤승중+변용, 원도시건축)

아카데미 플랜과 마스터플랜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수사학적인 접근을 통해 전통건축공간을 표현하려고 시도한 합리적인 건축군이다.

- 순천향대 향설기념도서관 (승효상, 이로재 건축연구소)

건축가의 온갖 재주가 어우러져 현대건축이 보여주는 희열을 느끼게 한다. 알루미늄 패널과 착색유리의 세련된 어울림은 물론 건물 곳곳에 나타나는 건축가의 유희가 보여지는 건물이다.

- 경기대 학생회관 및 제1강의동 리노베이션 (김준성, 스튜디오 아이)

기존 건물위로 경량철골조를 이용하여 2개층을 증축하였다. 기존 건물의 리노베이션에 새로운 도전과 재료의 물성을 이해하는 설계가 돋보인다.

- 계원예술대 우경예술관 (정기용, 기용건축)

적절한 배치와 형식언어를 통해 자연과 건축의 상호침투로 조장과 공존을 도모하고 자연과 건축물의 조화를 얻어내었다. 기존건물과의 심한 레벨차이를 공간적 배치와 여러 커의 조형언어로 해결하고 있다.

- 동명중고등학교 (정기용, 기용건축)

막사와 연병장을 연상시키는 기존의 중고등학교

교 건축에 커다란 반항을 일으키며 학교건축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한 작품이다. 반복과 차이라는 건축가의 의도를 외부공간과 외관에서 잘 실려내고 있다.

· 행잉어린이집 (김인철, 아arki움건축)

교실사이마다 좁고 긴 마당들을 마련한 공간구성이 특출하다. 노출콘트리트의 단순한 외관만큼이나 단순한 공간구성이 오히려 유아들의 자유스런 행동을 보장하며, 건축가의 의도대로 공간의 실제 숨결을 체득하게 한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정말 잘 해결한 유아원의 새로운 유형이다.

· 밀알학교 (유걸, 건원건축)

장애자시설의 기존관념을 깨는 밝은 색체계획과 대공간 아트리움의 다목적공간이 주목된다. 건축적 질서도 이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역시 장애자 시설의 새로운 개념의 접근이 주목된다.

종교건축

종교건축은 여전히 그 상징성 때문에 형태적인 추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일부 건축가를 중심으로 종교적 상징에서 건축물 내외부 공간에 의미를 두려는 개념 전환의 시도가 있었으며 본당 내부의 새로운 평면의 제시도 있었다.

· 의정부 성약교회 (민현식, 기오현 건축)

마당과 비워둠의 추구가 교회건축으로 확산되었다. 본당 내부의 ㄷ자형 회중석과 강단의 구성은 새로운 교회 공간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 원주 만종감리교회(백문기, 인토건축)

선적인 공간구성체계를 통해 자연과의 관계 설정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에 내부공간에서는 모더니즘의 언어가 읽혀진다.

· 심곡부활성당(김영섭, 건축문화)

비대칭적 알의 형상을 한 본당의 공간이 종교 공간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며 무분별하게 개발된 부천시의 스카이라인에 생명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구조적 도전과 모자익타일 마감의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떠올리게 한다.

· 성도교회(최동규, 서인건축)

인도사암이 주는 대비가 인상적이다. 교회내부의 좁은 로비를 대신하는 진입공간의 갈라진 십자가에 경계와 진입이라는 새로운 건축적 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 밖에도 능인선원 종합사회복지관(황일인, 일건)도 시선을 끌었던 작품이었다.

주목받은 국내 건축가

1997년 한 해도 많은 건축가들이 등장하고 있다. 기성건축가들은 자신의 건축역량을 한껏 발휘하며 건축전문잡지를 장식하고 일반인들의 건축이해를 북돋우고 있다. 이에 만만치 않게 신진 건축가들의 작품 또한 국내 건축계를 다양

하게 하는 견인차가 되었다.

지난 한해 공공, 교육, 문화시설 분야의 국내 건축에 두각을 나타낸 건축가는 다음과 같다.

중견 건축가 중에서는 대규모 건축에서 소규모 미술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명료한 건축언어를 표현한 김태수가 대가다운 면모를 보였다. 또한 간삼건축과 정림건축, 일건 C&C, 삼우설계를 이끄는 건축가들의 학교건축과 연구소 건물은 고품위의 건축적 질을 유지하며 국내건축을 여전히 이끌었다. 또한 건축의 본질과 건축공간의 의미를 중심으로 아틀리에 건축가들은 때로는 전위적으로 때로는 자기 반성적 태도로 치열하게 문제작을 제시하였다. 김인철과 백문기, 이일훈, 조병수가 그들이며 또한 김영섭과 정기용의 행보가 그 중 두드러졌다. 또한 현대건축의 조형성과 건축미를 작업 속에서 추구한 승효상, 유건이 역시 국내 건축계를 주도하였다. 신진건축가들의 도전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는데 김준성, 한만원이 거론된다. 물론 신진건축가들의 활약은 주거나 상업건축물에서 더욱 빛난다.

뜻이 크다면 한 칸의 방도 넓다 (意廣者 斗室寬若兩間)

1997년의 국내 건축분야를 뒤돌아보면 앞서 언급한대로 다양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느낄 수 있었다. 무인년 벽두부터 대면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성은 건축개념, 표현, 재료, 구조로 더욱 확산되어, 우리 국내건축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되리라 생각된다.

다양성을 화두로 다음의 일들이 새로운 한 해에 벌어졌으면 한다.

큰 것과 작은 것을 다 잘하는 건축가의 출현을 보았으면 한다. 중견 건축가가 설계한 자그마한 미술관에서 한 국건축의 맥을 보고, 아틀리에 건축가들이 내놓은 대단위 아파트 계획에서 건축의 본질을 보았으면 한다. 또한 다양한 배경의 건축가가 등장하였으면 한다. 건축가들과 조각가나 디자이너와 같은 비전공 건축가가 영역의 구분없이 공동작업하여 건축의 한계와 가능성을 더욱 넓혔으면 한다.

그리고 변신하는 건물을 보았으면 한다, 신규 프로젝트 못지 않게 건축의 리노베이션에 관심을 고조시켜 이를 건축적 표현으로 완성시키는 시도가 많아야 한다. 아울러 자생적 재료를 적극 이용하고 적용하는 시도도 뒤따라야 한다.

끝으로, 경제의 침체로 줄어든 건축설계 기회는 역설적으로 건축가가 건축설계에 투자하는 시간을 연장시키며, 프로젝트에 대한 건축가의 열정을 더욱 이끌어 오히려 국내 건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호기회가 될 것이다. 지난 한 해의 성숙처럼 올 무인년도 신진 건축가들의 도전과 기성 건축가들의 매진이 어우러져 손바람 좋은 한국건축이 되었으면 한다.